

세계 음악 차트 '지민 열풍'

라이크 크레이지, 빌보드 '핫 100' 1위 이어 각종 세부 차트 대거 정상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사진)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와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각종 세부 차트에도 대거 정상에 오르며 인기를 과시했다.

4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는 '디지털 송 세일즈'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위를 차지했다.

또 '글로벌 200'·'글로벌(미국 제외) 각각 2위, '스트리밍 송' 35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는 '라이크 크레이지' 외에 '셋 미 프리 Pt.2'(Set Me Free Pt.2) 5위, '페이스-오프(Face-off) 8위, '얼론(Alone) 12위, '인터루드: 다이브(Interlude: Dive) 15위 등 음반 수록곡이 고루 선전했다.

지민의 첫 솔로 음반 '페이스'(FACE)는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월드 앨범'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특히 지민의 이번 '핫 100' 1위 성과는 빌보드가 지난해 한 주에 다운로드 1건만 집계 대상으로 인정하고, 2건 이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한 뒤에 이뤄져 더욱 의미가 컸다. 당시 빌보드의 이 같은 규정 변경은 팬덤이 강한 K팝 가수를 견제하는 취지로 풀이됐다.

지민 외에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도 빌보드에서 룽런을 이어갔다.

리더 RM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첫 솔로 음반 '인디고'(Indigo)는 '월드 앨범' 13위, '톱 커런트 앨범' 36위, '톱 앨범 세일즈' 70위를 각각 기록했다.

제이홉은 지난해 12월 제이홉과 호흡을 맞춰 발표한 싱글 '온 더 스트리트'(on the street)로 '팝 디지털 송 세일즈' 6위, '알앤비/힙합 디지털 송 세일즈' 12위에 올랐다.진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공개한 싱글 '디에스트로너'(The Astronaut)으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7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전남대병원 의료진 고군분투 오늘 방송

KBS1 다큐인사이드 '코드블루'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사진)이 6일 밤 10시 KBS1TV에서 방영되는 메디컬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드'에서 지역 환자들을 지키며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오는 6일 방영될 '다큐인사이드'의 주제는 '코드블루'로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이 몰려드는 생명의 최전선 전남대병원을 들여다본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우리나라 대표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전남에서 가장 위급하고 위독한 환자들이 밤낮없이 몰려드는 등 심정지 환자 발생의 응급코드인 코드블루 상황에 매일 직면하고 있다.

또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가 출근 첫 날, 첫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 코드블루 상황과 초극소 미숙아가 동시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와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내기 의사의 상황,



안영근 병원장

특히 사극과 로맨틱 코미디까지 다양한 작품을 넘나들며 사랑받은 배우 유승호가 메디컬 다큐멘터리 '코드블루'편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이번 '다큐인사이드' 방송을 통해 지역 의료의 어려운 현실이 잘 알려지면 좋겠다"며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전문가 출판 노하우 공개합니다

동구 인문학당 '창비 편집자학교' 18일~7월 4일...7일부터 신청

미래 출판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출판편집 전문 강자가 광주에 마련됐다.

출판사 창비는 편집자 지방자를 비롯해 출판계 취업준비생, 독립출판 종사자 등에게 유용한 '창비 편집자학교'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창비학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편집자학교는 오는 18일부터 7월 4일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총 12강에 걸쳐 동구 인문학당에서 진행된다. 특히 강좌는 실습과제를 통해 수험형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출판기획서 작성을 비롯해 합평, 교정교열, 도서 내용제제와 복사지인, 홍보 등 출판 전 과정을 아우른다. 수강신청은 오는 7일부터 창비스위치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등록 가능하다.

강사로는 정홍수 도서출판 강 대표(문학평론

가), 정소영 창비 청소년출판부장, 박대우 도서출판 온다프레스 대표, 강영규 창비 편집전문위원, 전성이 창비 문학출판부장, 유병록 창비 어린이출판부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강좌는 백봉제기념출판문화진흥재단의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36만원. 유료 시 전액 환급, 미수료 시 반액 환급.

한편 창비 관계자는 "이번 강좌는 창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초심자 눈높이로 단행본 기획부터 편집과 디자인 홍보까지 출판의 전 과정을 조망하는 강좌"라며 "출판인을 꿈꾸거나 갓 입문한 지역 인재들의 역량 증진과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주 저항시인 이석성 소설 일본서 소개

김정훈 교수 '제방공사' 번역... '시와 사상' 4월호에 실려



'시와 사상' 4월호 표지 현 나주의 제방공사사. (김정훈 교수 제공)

이석성(본명 이장신·1941~1948)은 나주학생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독립운동가이자 저항문인이다. 그의 소설 '제방공사'는 1934년 '신동아'(10월~12월호)에 게재됐지만 일부 삭제되거나 복사(내용을 밝히지 않고 공란의 자리에 '○'·'×'와 같은 표를 찍음)돼 있을 만큼, 항일 저항의식을 담고 있다.

최근 이석성의 소설 '제방공사'가 일본의 시전문지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돼 눈길을 끈다.

김정훈 전남과학교사 교수는 이석성의 소설이 일본 '시와 사상' 4월호에 일어로 번역돼,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시 조선 총독부의 황포로 탄압 대상이었던 '제방공사'를 일어로 번역해 일본에 소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일제강점기 치열하게 저항한 작품을 일본 독자가 숨은 역사를 파헤치듯 읽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설 '제방공사'는 일제강점기 나주에서 조선총독부가 쌀 수탈을 위해 제방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그리고 있다. 게재된 작품은 지면의 제한으로 원고 75매 중 50매 분량이 게재됐으며 완역된 상태다. 1934년 신동아 10월~12월호의 원문과 이철 시인 '이명환 작가의 삶과 그 문학적 생애'(이명환 중단편집 5권 '겨울나기')에 수록된 현대문을 번역 저본으로 삼았다.

김 교수는 '제방공사'와 관련, 1911~1912년 작성된 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를 들추면 나주가 쌀농사 짓기에 가장 양호한 곳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세계적 공황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하자 일본제국주의가 쌀 공급지 나주를 식량 생산지로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이석성이 1931년 나주에서 제방공사가 실시되는 현장을 목도하고 집필한 만큼 리얼리티가 돋보인다"며 "총독부는 주인공이 붕기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곳이지만 게재하고, 붕기가 전개될 것으로 추정되는 분량은 제목이 실린 첫 페이지를 복사 처리 후 전면 삭제를 가해 미완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창' 봄호 나왔다

지역문화교류효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 봄호(통권60호)가 발행됐다.

특집기획으로 '아시아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쟁점과 풀어야 할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들 5편의 글이 실렸다. 이승권 조선대 교수의 'ACC 통합조직 출범 이후 1년, 제대로 가고 있나?',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 총괄지원연구관의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지형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의식이 먼저다', 홍성철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주흥 치유예술가 '두개의 시선으로 만나는 상무관 '검은비' 해법' 을 담았다.

'문화인 인터뷰'에서는 박병주 쟁쟁복초보존회 내드름 대표를 만나 진도복놀이 무형문화재 및 진도소포악의 실복춤 이수자로서의 복춤 외길을 들었다. '현장이야기'에서는 김도연 인권지킴이활동가가 화면 해설과 청각 장애인용 자막이 제공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새롭게 신설된 기획연재 코너 '건축과 광주문화'에서는 신웅주 조선대 교수의 '도시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이 소개되며, '문화공감 진단'에서는 주정민 전남대 정책대학원 원장이 '광주실감콘텐츠 큐브 100일,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다.

한편 '창'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문의 062-234-272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원한 디바' 故 현미를 기억하며

아리랑TV, 오늘 다큐 재방

아리랑TV가 지난 4일 별세한 '영원한 디바' 현미를 추모해 그의 66년 노래 인생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를 재방송한다.

아리랑TV는 가수 현미가 출연했던 올해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더 K레전드: 가수 현미, 스위즈 스틸 싱잉(The K-Legend: Singer Hyun Mi, She's Still Singing)'을 6일 재방송한다고 5일 밝혔다.

고인은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과거 함께 활동했던 원조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등 1960~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스페셜 무대에서는 히트곡 중 하나인 '밤안개'를 2023년 버전으로 다시 불렀



다. 국내 음악평론가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가요를 연구해 관련 논문을 발표한 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담았다.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